전북농협,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 운영

전북농협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지역사회 화합을 위한 전통문화 체험 행사를 마련했다.

전북농협(총괄본부장 김성훈)은 지난 15일 전주한옥마을 일대에서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농협중앙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의 하나로, 다문화가족이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문화 체험과 교류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생활 정착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한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염색체험과 한지뜨기, 비빔밥 만들기 등을 직접 체험하며 한국의 전통문화를 배우고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농협은 이번 프로그램이 단순 문화체험을 넘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장수경찰서, 음주운전 예방 집중단속 전개

장수경찰서(서장 황재현)는14일 저녁시간대 관내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번기와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실시되었으며, 특히 외곽지역과 면소재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단속을 펼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일깨웠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중대 범죄라는 인식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각읍면을 순회하며 주야간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정읍시 내장상동, 경찰과 합동 악성 민원 대비 훈련

정읍시 내장상동 행정복지센터가 민원실 내 폭언과 폭행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15일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이 민원에 빠르게 대처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현장에는 정읍경찰서 상동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민간 경비업체가 참여해 실제 상황처럼 훈련을 소화했다.

직원들은 사전에 마련된 대응 지침에 따라 단계별 조치를 연습했다. 특이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인을 진정시키고 중재에 나선다. 만약 위급 상황으로 번질 경우에는 신체 부착형 촬영기(웨어러블 캠)를 작동해 현장을 녹음하고 녹화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어 비상벨을 눌러 경찰에 신고한 뒤, 피해 공무원과 다른 방문객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했다. 마지막으로 출동한 경찰이 악성 민원인을 제압해 인계하는 순서로 훈련을 마무리하며 철저한 대응 방법을 익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은행·국민연금공단, 방축도서 첫 공동 사회공헌활동

해변 정화부터 어촌 자매결연까지… 지역 상생협력 모델 구축 본격화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이 국민연금공단과 손잡고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첫 공동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공동단장 박춘원 은행장·정원호 노조위원장)은 지난 15일 군산시 옥도면 방축도를 찾아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가정의 달 맞이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전북을 대표하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이 협력해 지속가능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첫 공동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연금공단 이여규 복지이사, 전북은행노동조합 정원호 위원장, 전북은행 김은호 부행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 임직원 20여 명이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봉사활동에 나섰다.

참가자들은 방축도 해안가 일대서 폐어구와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해변 환경정화활동을 펼치며 섬 환경 개선에 힘을 보탰다. 해양 생태계 보전과 깨끗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섬 주민들이 공동 운영하는 펜션에 필요한 각종 후원 물품을 전달하며 실질적인 생활 지원에도 나섰다. 전달된 물품은 방문객 편의 증진과 주민들의 공동 수익사업 활성화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은 방축도와 '어촌사랑 1사 1어촌' 자매결연 협약식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협약을 통해 전북은행은 방축도와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며 어촌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 이여규 복지이사는 "올해 지역 대표 금융기관인 전북은행과 뜻을 모아 자매결연 마을에 더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공단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북은행노동조합 정원호 위원장은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공공기관과 단체들과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남원농기센터, 귀농인의 집 입주자 모집… 26일까지 신청

남원시 농업기술센터가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수지면 '귀농인의 집'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5월 12일부터 26일까지이며, 대상지는 수지면 등동마을에 신설된 귀농인의 집 1세대로, 남원시에 정착하고자 하는 예비 귀농귀촌인이 일정 기간 임시로 거주하며, 영농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 공간이다.

마을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리모델링된 빈집이나 모듈형 주택을 제공해 귀농 초기 주거 확보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진입장벽을 낮추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남원시에 있는 귀농인의 집은 총 10개소(보절면 1, 금지면 2, 수지면 5, 주천면 2)이다. 이번 모집 대상인 수지면 등동마을 주택은 올해 새롭게 조성된 2곳 중 하나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다.

입주 기간은 1년이며, 1회에 한해 1년 연장이 가능해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 및 시설 사진 등 상세 정보는 귀농·귀촌 종합 플랫폼 '그린대로'와 남원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새삶터정책팀(063-620-6365)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www.j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5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효자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8329-6677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4172-3800
	익산지사 858-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남원소방서, 부처님 오신날 대비 화재안전점검

남원소방서는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옴에 따라 지난 14일 오후, 왕정동의 전통사찰 대복사(大福寺)에서 현장 화재안전관리 강화 및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처님 오신 날 전후 봉축 행사와 연등 설치 등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진행됐다.

이날 현장을 찾은 소방서장 등은 △문화재 주변 화재 취약요인 확인 △소화기,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실태 점검 △연등 설치 및 촛불 사용에 따른 화기 취급 주의 당부 △사찰 관계자 대상 초기 소화 방법 및 비상대응 체계 지도에 나섰다.

한편, 남원소방서는 부처님 오신 날 당일까지 지역 내 주요 사찰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신속한 출동 태세를 유지하는 등 화재 예방 대책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소방서, 주택화재 초기진압 의용소방대원 표창

고창소방서(서장 이경승)는 10일 오전 8시 15분경 고창군 해리면 소재 한 주택 차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신속히 초기 진압해 큰 피해를 막은 의용소방대원에게 소방서장 표창을 수여하고 포상으로 소화기 2개를 보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주택 차고에서 발생했고, 초기 연소 확대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인근 주민인 고창의용소방대연합회 해리남대 오승범(69년생) 대원이 소화기를 활용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불길이 주택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수여식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초기진화 더블 보상제' 일환으로, 오승범 대원이 화재 진압 당시 사용한 소화기 1대의 두 배인 총 2대의 소화기를 부상으로 지급해 의미를 더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장수경찰서, 호우 대비 관계기관 합동 재난훈련 실시

장수경찰서(서장 황재현)는 지난 14일 번암면 동화저수지에서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로 저수지가 붕괴 또는 범람하는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 소방, 지자체(남원시청?장수군청), 농어촌공사(남원지사) 등 유관기관 50여 명 참여하는 '2026년 재난대비 저수지 비상대처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폭우로 동화댐의 수위가 범람 또는 홍수 위험 수준에 도달했으나 수위 조절을 위한 수문 개방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였고, 강제 개방을 위해 대형 크레인을 투입하고 침수가 예상되는 저수지 하류 지역의 주민을 대피시키는 긴급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했다.

/장수=고판호 기자